서울 용산역에 문 연 '광주·전남 비즈니스라운지' 가 보니

기업인 배려 공간…수출상담 손님들로 가득

개소 10개월새 이용객 5200여명 방문

광주·전남 기업인들 비즈니스중심지로

"기업인을 배려하는 공간이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다 누구나 찾기 쉬운 용산역에 있다 보니 방문객 수가 갈수록 늘고 있어요."

지난 27일 서울 용산역 4층의 광주·전남 비즈니스라운지. 입구 전면에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와 광주 봄꽃박람회 등 지역행사 홍보 포스터가 부착된 라운지는 오후 2시가 넘어가자 손님들이 하나 둘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해외 바이어와 수출상담을 위해 모인 4명의 기업 관계자부터, 정부부처 출장 뒤 잠시 이곳을 찾은 전남도청 직원까지, 99㎡(30평)의 공간은 금세 사람들로 메워졌다.

광주의 A기업 관계자는 미국에서 왔다는 바이어와 함께 한쪽 벽면을 따라 전시된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의 생산품을 둘러보며 "광주는 자동차와 타이어, 광(光)제품이 생산되는 산업도시"라고 설명한 뒤 고개를 끄덕이는 바이어에게 VIP룸에서 자사의 제품을 소개했다.

국비사업을 위해 전남도청 직원과 서울 출장을 온 김승평 조선대 교수는 "처음 방문했는데, 서울에서 광주·전남의 이름을 보는 것만으로 반갑다"며 "시도민을 위한다는 자부심과 함께 외부에 나타나는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3일 문을 연 광주·전남 비즈니스라운지는 개소 10개월 여만에 5200여명이 방문했다. 하루 평균 25명이 이곳을 찾아 업무를 진행했으며 단순히 전시물을 보기 위해 들린 사람을 포함하면 8000명이 라운지를 이용했다. 그동안 회의실이 이용된 숫자만 210차례. 100여개가 넘는 기업체가 바이어 상담 및 투자유치 회의를 열었고, 최근 한 지역기업이 이곳에서 200억원 가량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개소 1년이 채 되지 않아 광주·전남지역 기업인을 위한 '비즈니스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기업인들이 라운지에 가장 매력을 느끼는 것은 모든 제반 비용이 무료라는 점. 수출상담 등을 위해 수도권의 회의실 대여료가 30만원 가량 됐던 것을 감안하면 지역 기업들에게 비용 감소 혜택을 제공한다. 커피 등 음료와 PC, 복사기도 무료 제공된다. 여기에 교통이 편리하고, 장소를 알리기가 쉽다는 점도 장점이다. 라운지에는 산업 위주의 광주지역 생산품과 농·수산물 가공품으로 이뤄진 전남지역 제조품이 함께 전시돼 바이어나 타 지역민에게 홍보효과도 상당하다.

방문객이 급증하면서 이용 편의와 홍보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매번 방문록을 작성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멤버십 카드로 대체할 예정이며 라운지에 자사 제품을 전시하고 싶다는 지역기업들의 요청이 많아 상반기 중 전시부스도 추가로 설치된다.

라운지 운영을 맡고 있는 홍호표 광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은 "더 많은 광주·전남 기업들이 라운지를 활용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며 "하반기에는 라운지를 이용해 지역상품 판매전을 개최하는 등 '지역 홍보전략의 일번지'로 라운지를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비즈니스라운지는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예약문의(02-796-0007).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지난 29일 서울 용산역 광주·전남 비즈니스라운지 VIP룸에서 광주의 R기업 관계자들이 바이어와 수출을 위해 미팅을 하고 있다. 〈광주상의 제공〉

광주·전남 비즈니스라운지에 설치된 광주·전남지역의 생산품 전시부스.

"폴리 포장마차로 오세요"

광주비엔날레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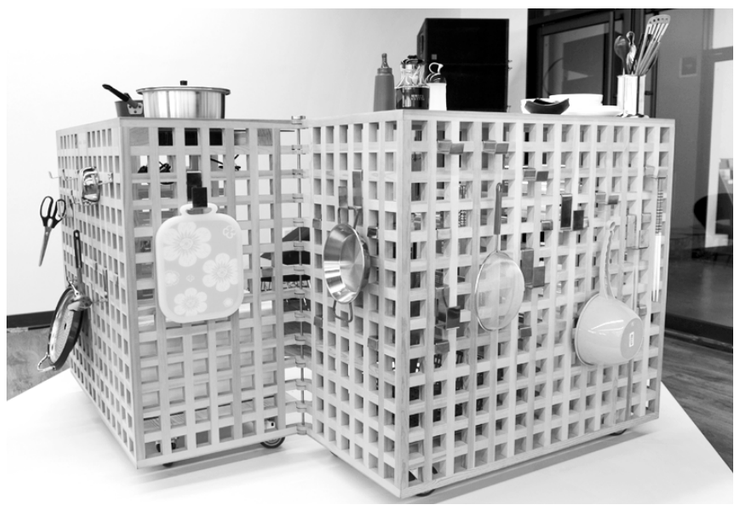
'광주 폴리Ⅱ' 활용

시민 참여 문화행사

광주비엔날레재단은 30일 '인권과 공공공간'을 주제로 지난해 11월 완공된 '광주 폴리Ⅱ'를 활용한 시민 참여형 문화 행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4월 1일에는 북구 광주역 앞에 있는 '혁명의 교차로'(에얄 와이즈만 작)에서 '광주 젊은이, 인권을 품다' 전시회 개막식이 열린다. 전시는 청소년 모의 UN인권 이사회 토론 모습, 이주민 학교 자원 봉사 활동 현장 사진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인권평화재단 이사장 천주교 광주대교구 김희중 대주교 등이 참석한다.

'포장마차'(아이 웨이웨이 작) 운영을 맡은 (사)푸른길은 4월 4일 오후 6시 동구 남광주 푸른길 공원에서 남광주 상인들과 함께 '포장마차 영업 개시' 오프닝 파티를 연다. 놀이패 신명 배우 정찬일씨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는 포장마차에서 만든 음식을 맛보는 시식회 등으로 꾸며진다. 푸른길은 올 한해 동안 포장마차와 문화·음식, 재래시장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아이 웨이웨이 작 '포장마차'

식목일인 4월 5일에는 금남지하상가 '기억의 상자'(고석홍·김미희 작)에서 시민 대상 프로그램이 열린다. 운영 파트너 광주YMCA는 이날 시민 100여명과 함께 '봄꽃'을 주제로 종이 접기 작품을 만들어 보는 '기억의 상자와 함께하는 로드스쿨'을 진행한다.

'광주천 독서실'(데이비드 아자예·타이에 셀라시 작)을 맡은 (사)교육문화공동체 결은 4월부터 '일일 시민관장 프로젝트'와 '서포터즈의 날'을 진행할 '독서실 서포터즈'를 모집할 계획이다. '틈새호텔'(서도호 작)도 홈페이지(www.inbetweenhotel.com)를 통해 조만간 투숙객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문의 062-608-4263.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무안 운남~신안 압해 교량 '김대중 대교' 명명

국내 첫 정치인 이름 눈길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정치인 이름이 붙여졌다.

전남도는 30일 국토지리정보원이 최근 국가지명위원회를 열고 무안 운남과 신안 압해를 잇는 교량 이름을 '김대중 대교'로 명명했다고 밝혔다. 교량이나 도로, 공항 등 공공시설물에 정치인 이름이 붙은 것은 '김대중 대교'가 처음이다.

세계 최대 경간거리를 자랑하며 여수와 광양을 잇는 '이순신대교'가 있지만, 현대 정치인 이름이 붙은 사례는 없다.

이름을 확정못해 '무명(無名)의 다리'로 개통됐던 이 교량은 지자체 간 논란 끝에 '김대중대교'로 합의한 뒤 최근 국가지명위로 상정됐다.

국가지명위에서는 '격에 맞지 않는다' 등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지자체간 갈등 치유와 화합의 의미, 외국 사례 등을 참조해 표결 끝에 가결했다.

애초 이 다리 명칭을 놓고 무안과 신안 두 지자체가 '운남대교'와 '신안대교'로 요구하는 등 팽팽히 맞서면서 2년째 제자리걸음을 했다.

도(道) 지명위원들도 두 지역 앞글자를 따 '신무대교, 압운대교' 등을 제안하는 등 심의가 보류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무안, 신안 두 지자체는 지난 1월 자체 의견을 수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따기로 합의했다.

또 김대중기념사업회로부터 이름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논란이 된 다리는 지난해 12월 27일 준공된 연륙교로 무안 운남과 신안 압해를 연결하는 길이 925m, 폭 20m의 1등교이다. 지난 2003년 6월 착공, 사업비 1420억원이 투입됐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대학생 영어 공부, 전공 과목의 2배"

주 평균 9시간· 연 20만원 써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영어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이 전공과목 공부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4년제 대학 3~4학년 학생 1123명을 대상으로 '대학생의 교육투자에 따른 희망임금과 취업 선호도'를 조사, 분석한 결과 대학생들의 주간 학습시간은 평균 8.89시간에 달했다.

이중 영어 공부에 3.94시간을 투자해 가장 길었고, 공무원시험 공부(2.40시간), 전공 공부(1.98시간), 제2외국어 공부(0.51시간), 교육훈련(0.10시간)이 뒤를 이었다. 대학생들이 이 같은 공부에 들인 사교육비용은 연간 평균 20만5000원이었다.

이중 절반에 달하는 10만2000원을 영어 사교육에 썼고, 전공 공부를 위한 사교육에는 4만8000원을 투자, 영어에 들인 금액의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공무원 시험을 위한 사교육에는 4만2000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공부시간과 비용에서 더 많은 투자를 했다. 여학생의 공부시간은 9.74시간으로 남학생(8.39시간)보다 길었다. 남학생은 영어(4.07시간)와 전공(2.01시간) 공부에 주력했고, 여학생은 영어(3.70시간)와 공무원 시험(3.21시간) 공부에 많은 시간을 들였다. 사교육비용은 여학생이 30만1000원으로 남학생(14만9000원)의 두 배가량 됐다.

대학 소재지별로 보면 서울의 대학생이 1주일에 10.47시간을 공부해 지방(8.38시간)이나 수도권(7.32시간) 대학생보다 학습시간이 길었다. 사교육 비용은 수도권 학생이 28만2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3만1000원), 지방(17만4000원) 순이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31226-중-5229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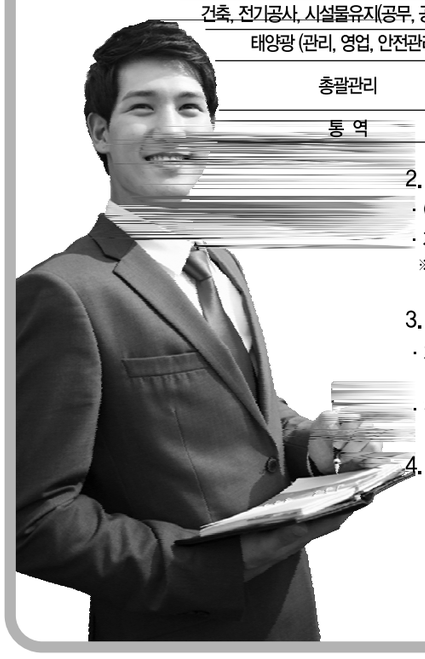
(주)탑인프라 (주)티아이지 채용공고

21세기 **환경친화적 건설과 신재생에너지 사업분야**의 전문기업으로서 환경과 고객을 최우선으로생각하는 기업 **(주)탑인프라**에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합니다.

1. 모집부문(신입 및 경력직)

모집부문	모집인원	응시자격	비 고
총무, 법무, 세무회계	0명	건설업 총무 · 법무 · 세무 · 회계 결산가능자	
건축, 전기공사, 시설물유지(공무, 공사, 영업)	0명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자격증소지자우대	
태양광 (관리, 영업, 안전관리)	0명	에너지전문기업 (ESCO)경력자우대, 한전출신우대	
총괄관리	0명	제재소 운영 유경험자 및 우드펠릿 관심 있는자 러시아현지 근무가능자	
통 역	0명	러시아어 통역가능자 (해외출장결격사유없는자)	

※ 모집전형, 1차 서류, 2차 면접



2. 제출서류
· 이력서(당사 소정 양식), 자기(경력)소개서, 졸업(예정)증명서
·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www.topinfra.co.kr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 제출방법 : 우편(택배):이메일 접수 · 주 소 : 광주시 북구 추암로 69 관리팀
· 이메일 : tid4088@hanmail.net)
· 접수기간 : 2014년 **04월01일(화)~2014년 04월 07일(화)** 18:00까지(마감)

4.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팀(☎062.710.040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탑인프라
(주)티아이지